

제68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6월 29일)

## 야외의식용 괘불의 의미와 가치

정명희, 203호 불교회화실, 18:00~1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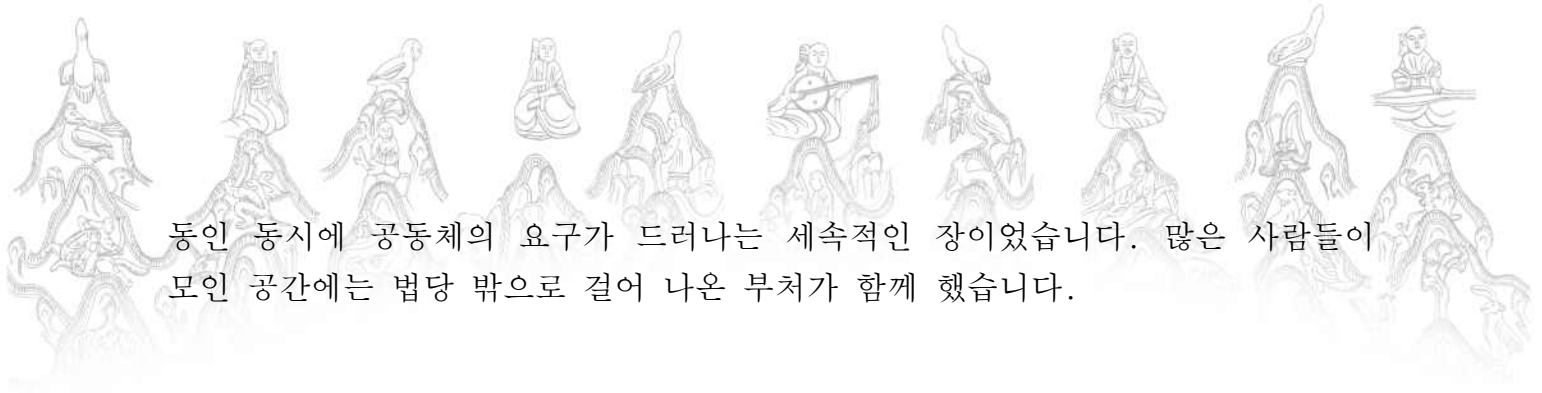


그림 1. 응열 등 4명, <수덕사 괘불>, 조선 1673년, 삼베에 색, 1,071\*711cm, 보물, 예산 수덕사 소장

동아시아 불교 문화권에서 대불大佛의 조성 전통은 오래되었지만, 대형 불화의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물론 의식용 대형 불화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티베트나 몽골은 초원이나 큰 건물의 벽면을 활용해 대형 아플리케를 걸고 의례를 진행했습니다. 물과 육지에서 죽은 모든 영혼을 천도하는 의례인 수륙재水陸齋를 위해 중국에서 만든 수륙화水陸畫나 일본의 시아귀도施餓鬼圖도 의식용 불화의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남아 있는 120여 점의 조선시대 괘불은 의식 문화가 활발하게 꽃피웠던 우리나라 사찰의 역동성을 전해주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승속僧俗이 동참하여 진행되는 의례는 범패와 작법무가 베풀어지는 종합 예술 공간이자,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의례가 개최되는 공간 내외부는 전체적인 기획 속에 활용되었습니다. 음악과 작법과 도량을 장엄한 그림들과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시각적, 청각적 자극이 가득했습니다. 의례가 공연처럼 시간과 공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무형의 것이라면, 괘불은 성스러운 설법의 공간, 영험한 의례를 가능하게 하는 시각적 상징물로, 그 시대의 종교가 수행한 사회적 기능을 반영합니다.

조선시대 사찰의 전 공간은 의식 절차에 따라 하나의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승려와 신도, 의식에 청해진 불보살과 영혼은 갈등을 드러내고 화합을 꿈꿉니다. 괘불은 신앙의 대상을 상징하는 데서 나아가 현실의 도량을 영산회상으로 재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의식이 베풀어지는 사찰에서는 종교적 체험 이외에 세상을 떠난 영혼과 살아있는 자들의 만남도 가능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 억울하거나 갑작스런 죽음을 맞은 원혼冤魂은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믿어졌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 예우는 살아있는 자가 수행했던 중요한 일상 활동의 하나였습니다. 두 세계의 대화와 화해를 꿈꾸는 불교 의식은 가장 성스러운 종교 활



동인 동시에 공동체의 요구가 드러나는 세속적인 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는 법당 밖으로 걸어 나온 부처가 함께 했습니다.

제68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6월 29일)

## 특별전<아스테카,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8)

박진일,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아스테카는 아스틀란(하얀 땅) 출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수호신 우이칠로포츠틀리의 예언으로 고향을 떠나 200년 가까이 유랑하던 중 부족의 이름을 메시카로 바꾼 후 14세기 무렵 멕시코 중앙고원 속에 있는 테스코코 호수 안에 있는 섬에 정착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의 다른 문명과 비슷하게 아스테카 역시 태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중심으로 여러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다른 문명과 조금 다른 점은 신들의 희생 덕분에 세상과 태양이 움직이게 되었다고 생각한 점입니다. 인간이 이에 대한 보답을 해야 태양이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아스테카는 하나의 통일국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메시카족이 세운 테노치티틀란이라는 도시국가가 중심이 되어 호수 주변의 테스코코, 틀라코판과 삼각동맹을 이루어 주변의 도시국가를 통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통제의 방식은 전쟁과 공물이었습니다. 이런 개념은 아스테카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작동원리가 되었습니다.

전시는 아스테카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를 향해 몰입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즉 우주, 자연 환경, 아스테카의 수도 테노치티틀란, 그 중심에 있었던 신성구역 그리고 대신전인 템플로 마요르(templo mayor) 순입니다. 기존에 우리에게 알려진 아스테카의 잔혹한 이미지가 다분히 기독교적 정복자의 관점에서의 이야기인데 전시는 인신공양으로 대표되는 희생의례 이면에 있는 아스테카 사회의 작동원리와 세계관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관람객 개개인이 이 전시를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1. 인간의 창조자이자 지하와 새벽의 신 케찰코아틀(깃털달린 뱀, 두 번째 태양)



그림2. 움직임의 태양 토나티우 (다섯 번째 태양)



그림3. 지하세계의 신 므틀란테쿠틀리



그림4. 젊은 옥수수의 신 실로넨

## 국보 반가사유상과 사유의 여정

신소연, 사유의 방, 19:00~19:30



그림 1. 금동반가사유상, 6세기 후반(좌), 7세기 전반(우), 국보

2021년 11월 일반에 공개된 <사유의 방>은 국보 반가사유상을 위한 전용 전시 공간으로 관람객은 자신만의 사유의 의미를 찾아보며 특별한 여정을 경험해볼 수 있는 전시실입니다.

반가사유상의 ‘반가半跏’란 한쪽 다리를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은 반半결가부좌의 자세를 의미하고, ‘사유思惟’란 살짝 손을 얼굴에 댄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을 뜻합니다. 반가사유상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하는 석가모니 부처의 태자시절 모습과 중생 구제를 위해 깊은 생각 끝에 깨달음에 도달한 보살의 모습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입가에 흐르는 신비로운 미소는 깨달음의 찰나를 상징하는데, 우리 마음 속에 깊은 감동과 위안을 선사합니다.

과거 한 점씩 교대로만 볼 수 있던 두 반가사유상을 <사유의 방>에서는 함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상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표정, 옷차림, 제작시기가 다릅니다. 6세기 후반에 제작된 반가사유상(전시실 왼쪽)은 이목구비가 날카롭고 화려한 보관과 장신구가 특징이지만 선 하나하나가 절제되어 있습니다. 반면 7세기 전반에 제작된 반가사유상(전시실 오른쪽)은 노출된 상반신에 간결한 보관과 장신구만 걸치고 있지만, 무릎 아래 옷주름은 울동적입니다. 두 반가사유상은 화려하면서도 절제되어 있고 간결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삼국시대 불상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 공간을 위해 박물관은 건축가와 협업하여 반가사유상의 에너지와 전시 공간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전시를 탄생시켰습니다. 기울어진 벽과 바닥, 천장은 현실을 벗어난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며 천장의 은은한 별빛은 우주의 무한한 공간을 상징합니다.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사유의 방에서 나만의 특별한 경험의 여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68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6월 29일)

## 고대 불교조각의 아름다움

김영희, 301호 불교조각실, 19:00~19:30

기원전 6세기경 인도 서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불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동쪽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사막과 광활한 초원, 그리고 중국 대륙을 지나 드디어 4세기경 한반도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넓은 지역에서 신앙되기 시작한 후에도 불교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했습니다.

스승으로서의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을 암송하고 공부하던 초기 불교에서부터 무궁무진한 부처와 보살이 존재하는 세계관으로 확장되기까지, 불교는 이를 믿는 사람들의 다양한 바람과 필요성에 따라 그 경계를 넓혀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때에 불교를 공인하면서 공식적으로 불교를 믿기 시작하였으며, 민간 차원에 처음 전해진 것은 4세기 경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부터 200~300년간 조성된 고대 불교조각들은 당시 신앙되었던 부처의 모습과 사람들의 바람을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 시기의 불교조각에는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과 신체에 대한 숭배가 엿보입니다. 석가모니 부처의 생애에서 중요한 순간인 선정, 항마, 설법의 모습을 표현한 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상인 <뚝섬 출토 불좌상>(그림 1)은 두 손의 손바닥을 위로 하여 배 앞에 겹쳐 둔 선정인의 손모양을 하고 가부좌를 튼 모습입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출가 후 고행하며 삶의 의미와 우주의 이치에 대하여 선정할 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시기의 상들에는 근본적인 삶의 고통을 해결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도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고대 불교조각에서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모습은 왼손을 가슴 앞에 들고 오른손을 허리 아래로 내려 손바닥을 보이는 시무외 여원인의 손모양을 한 상입니다. 이 손 모양은 불상과 보살상에 두루 사용되는 것으로, 두려움을 없애 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자비로운 존재를 상징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바라는 자비로운 절대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치유를 비는 약사부처도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부처는 한 손에 약그릇이나 구슬로 보이는 둥근 지물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염원한 고대 사람들의 기원이 투영된 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여래좌상, 서울  
뚝섬 출토, 5세기경



그림 2. 여래좌상, 부여  
군수리 출토, 6세기



그림 3. 연가 7년명 여  
래입상, 고구려 539년



그림 4. 약사여래입상,  
신라 7세기 전반